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FAMILY DAY

<가정(오이코스)이라는 꿈을 다시 꾸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 마 16:18 중에서)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4·5·6월호 소개 - 가정(오이코스)이라는 꿈을 다시 꾸라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04.03 ~ 04.09	온유한 사람 모세	12
2주	04.10 ~ 04.16	왕으로 오신 예수	14
3주	04.17 ~ 04.23	부활의 평안	16
4주	04.24 ~ 04.30	하나님의 힘으로	18
5주	05.01 ~ 05.07	어린이는 기적이다	24
6주	05.08 ~ 05.14	하나님의 뜻을 따라	26
7주	05.15 ~ 05.21	아이를 일으켜 불들라	28
8주	05.22 ~ 05.28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요	30
9주	05.29 ~ 06.04	지음 받은 은혜	32
10주	06.05 ~ 06.11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38
11주	06.12 ~ 06.18	삼위 하나님의 축복	40
12주	06.19 ~ 06.25	우리의 소원(통일)	42
13주	06.26 ~ 07.02	여호와를 힘써 알자	44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 함으로 세웁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오이코스)이라는 꿈을 다시 꾸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 마 16:18 중에서)

올해 영락교회는 오이코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oikos)**라는 헬라어(고대 그리스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오이코스 말씀 묵상이 더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 '가정'을 세우는 영적 행진에 더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1 헬라어 오이코스

- 헬라어 **오이코스**의 기초 뜻은 '**가정, 가족**'입니다.
- **오이코스**에 장소적 의미가 덧붙여져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소(집)**'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 세계의 집 구조를 살펴보면 침실과 마당 뿐 아니라 특이하게도 여성들만의 공간인 기네세움(gynaeceum), 남성들만의 공간은 앤드론(andron)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이코스'(oikos)라 불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은 남성, 여성, 아이 할 것 없이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방'을 의미하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장소로서 진정한 의미의 집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 그런가 하면 **오이코스**는 '**한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 뿐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인과 노예들도 모두 하나의 오이코스 즉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백성 됨의 징표로 할례를 처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가족이나 하인 뿐 아니라 돈으로 산 이방 노예들도) 모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집에 사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오이코스**는 '**가족이 함께 행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생계를 위해 행하는 일, 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이코노미 즉 경제입니다. 경제의 가장 기초는 오이코스 즉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2 창세기의 오이코스

-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로 부르신 **오이코스**(가정)를 만드셨습니다.
- 그들이 함께 살아가던 **에덴 동산**이 바로 그들의 **오이코스**(집) 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생명의 사명과 그 생명 세계를 온전하게 **지키고 다스리는 오이코스**(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 비록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자녀들(가인, 아벨, 셋)**을 주셔서 더 큰 **오이코스**(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믿음의 가정 **오이코스**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3 예수님의 오이코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오이코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위 말씀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구절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고,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내 교회를 오이코스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 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오이코스)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설혹 이전에는 낯선 이었어도, 심지어 원수였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이를 한 가족(오이코스)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 또한 교회는 구체적인 모임의 공간, 함께 모이는 장소(오이코스)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오이코스) 다락방을 내어 드려 첫 교회 모임이 이뤄졌고 성령강림의 역사가 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처음 전해졌을 때 세계를 향한 선교의 행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루디아가 자신의 집(오이코스)을 내어 드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 주님은 교회로 부르신 이들에게 가장 거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오이코스)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4 다시 가정(오이코스)이라는 꿈을 꾸라!

최근의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가정’이라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회의 일반 청년들 중에도 이전과 달리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시 오이코스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는 우리에게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비전이었던 오이코스
예수님께서 교회의 비전으로 삼으신 오이코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가정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오이코스
이제 ‘가정’(오이코스)이라는 꿈을 다시 꾸어야 할 때입니다.

‘페밀리데이 가정예배책자’는 오이코스 목상집의 순서에 따라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매 주일 자녀들과 함께 앉은 가정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서로 가족 됨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가정의 모든 일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여 협통케 하고, 나아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명을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 의 오이코스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4

APRIL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 C[#]m7 D A E/G[#]

우 리 둘 을 위 하 애 — 십 자 가 에 못 박 혀 —

모 든 죄 를 — 용 서 하 사 — 의 인 삼 아 주 신 주 —

어 떤 일 이 있 어 도 — 나 른 비 리 지 않 고 —

죽 기 까 지 — 사 랑 하 신 — 나 의 귀 한 예 — 수 님 —

내 마 음 의 한 자 리 — 가 장 귀 한 그 자 리 —

주 오 셔 서 — 앉 으 소 서 — 주 님 만 나 의 보 배 —

내 마 음 의 한 자 리 — 가 장 귀 한 그 자 리 —

주 오 셔 서 — 다 스 리 소 서 — 주 님 만 나 의 영광 —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en staves of music for voice and piano. The key signature is G major (two sharps). The vocal part uses mostly eighth-note patterns.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chords and bass notes. The lyrics are in Korean, with some English words like 'My Heart Belongs to You'.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by measure numbers (e.g., 1, 5, 9, 13, 17, 21, 25, 29) and includes chord symbols above the staff (e.g., A, C#m, F#m, D, Bm, Esus4, E, C#m, F#m, B7, A/C, Bm, C#m, Bm7, E7, A).

4/3-9

1주 가정예배

온유한 사람 모세

민수기 12:3



이 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말씀 읽기 - 민수기 12:3

0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생각하기

- Q1.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혼난 적이 있나요? 그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봅시다.
- Q2. 1번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혼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함께 화를 내는 것과 억울하지만 화내지 않고 참았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듣기

‘온유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격 혹은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모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신의 결혼에 대하여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같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왜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하냐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절대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일을 참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이 오해를 받아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서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지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울하게 손가락질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나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인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채워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1

5

6

4/10-16
2주 가정예배

왕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2:12-19



이 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말씀 읽기 - 요한복음 12:12-19

-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리라
-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생각하기

- Q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 Q2. 예수님은 내게 가장 귀하신 분으로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 맞으신가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며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유혹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높여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같이 지배하는 왕, 오만한 왕, 괴롭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왕, 겸손한 왕, 고난 받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보여주시듯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인이자 왕으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주인이자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배하거나 오만하게 굴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겸손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들의 주인이자 왕으로 높여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자 왕 되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주인이자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게 오셔서 주인되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2

5

6

4/17-23

3주 가정예배

부활의 평안

마태복음 28:9-10



이 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말씀읽기 - 마태복음 28:9-10

- 0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끌잡고 경배하니
-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 두려워 떠는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기쁨 가운데 평안을 얻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뀐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Q2.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말씀듣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에 나아갑니다. 무덤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무덤에 온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과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때에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맞이하시며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늘 나누었던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두려워 떨던 여인들에게 가장 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3

5

6

4/24-30

4주 가정예배

하나님의 힘으로

베드로전서 4:11



이 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말씀읽기 - 베드로전서 4:11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 Q2.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돋는 봉사를 할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나요?



말씀듣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닮아서입니다. 물론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당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도 비난받고 예수님만 사랑해도 고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은사는 다른 이를 섬기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자기 영광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나의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말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저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용서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4

5

6

메모 MEMO

5

MA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어린이날

8

9

10

11

12

13

14

어버이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C

너 는 담 장 너 머 로 뻗 은 — 나 무 — 가지
는 어 땐 시 련 이 와 도 — 능 하 — 이 거

Dm Fm/D C G/B G/B A

에 푸 른 — 열 매 처 럽 — 하나님 의 —
낼 강 한 — 팔 이 있 어 — 전 능 하 신 —

B/D# E7 Am7 Dm7

귀 한 촉 — 복 — 이 — 삶 에 — 가 득 하 —
하 나 님 — 께 — 서 — 너 와 — 언 제 나 —

1. 14 Dm/C G G/G G Dm/C G F/G G

님 쳐 날 — 거 — 야 — 너 합 께 하 — 시 — 니 — —

C G/B A m E m/G

너 는 하 나 님 의 — 사 — 랍 — 아 름 다 운 하 나 — 님 의 — 사 — 랍
너 는 하 나 님 의 — 선 — 물 — 사 렁 스 련 하 나 — 님 의 — 열 — 매

1. 24 F C/E Dm F/G G7

— 나 는 널 위 — 해 — 기 — 도 하 며 — 네 길 을 — 축 복 할 — 거 야

2. 28 F C/E Dm G C

— 주 의 품 에 — 꽃 피 운 — 나 무 가 되 어 줘 — —

5/1-7

1주 가정예배

어린이는 기적이다

창세기 21:1-7



이 달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23P



말씀읽기 - 창세기 21:1-7

- 0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 0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 0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 0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 0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 0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 0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생각하기

- Q1.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게 된 아들이었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약속을 기다릴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Q2.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기쁨을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할 때는 언제였는지,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듣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도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쁨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아주셔서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을 사라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 때의 웃음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라의 웃음은 그때의 웃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 웃는 기쁨의 웃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의 각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기쁨이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희망이고, 소망이며,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기적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허락해주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5

1

6

5/8-14

2주 가정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기 21:8-13



이 달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23P



말씀 읽기 - 창세기 21:8-13

- 0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 0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생각하기

- Q1.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떠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 했나요?
- Q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받고 싶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놀림 받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있고, 이삭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축복하셨고 함께 하시자 이삭은 많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 보다 어리고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 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15-21
3주 가정예배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창세기 21:14-21



이 달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23P



말씀읽기 - 창세기 21:14-21

-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 17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 19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 20 하나님의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생각하기

- Q1.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일 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Q2. 비록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듣기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깊은 고민과 염려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갈등과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보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수 있는 떡과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두 빨을 내딛어 맞이한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가도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앞으로 지날 모든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다시 용기 내어 삶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앞서가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5

3

6

5/22-28

4주 가정예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요

창세기 21:22-34



이 달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23P



말씀 읽기 - 창세기 21:22-34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 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냐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 Q2.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된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자신은 물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 동안 브엘세바에서 겪은 자신의 어려운 점을 전달했습니다. 견조한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귀중하게 여겨지는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답으로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문제를 즉시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해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자신의 땅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더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29-6/4
5주 가정예배

지음 받은 은혜

창세기 1:27-28



이 달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23P



말씀 읽기 - 창세기 1:27-28

- 27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만드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 Q2.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듣기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썽이니?”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은 채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말고도 바로 하나님과 닮은꼴로 지음을 받았다면 믿어지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지니고 지음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이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니, 나 자신이 이전과는 좀 달라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닮은꼴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이 땅에서 매일 호흡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5

6

메모 MEMO

6 JUNE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현충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 B m7 C#m7 D B m7 E 7

나는 — 기 도 를 쉬 는 죄 를 범 치 — 않 으 리 — 이 나 라 를 사 령 하 — 기 — 에 —

5 A B m7 C#m7 D D E 7 A

순 교 — 자 들 의 피 로 값 주 고 — 산 나 라 어 품 에 게 내 어 주 지 꽂 — 으 리 —

9 A B m E/G# A D

나 의 — 기 도 가 이 나 라 살 릴 수 있 다 면 — 나 는 결 코 이 기 도 를 쉬 는

12 G E 7 A B m7 E/G# A

죄 를 범 치 — 않 으 리 우 리 — 기 도 로 이 나 라 회 복 할 수 — 있 다 네 피 로 명

15 D B m7 E 7 A G F

든 낙 타 무 를 간 절 한 눈 물 — 의 기 — 도 — 기 도 의 응 사 되 리 — 기 도

19 G B m D m E A B m

의 제 물 되 리 — 이 나 라 위 — 해 불 타 도 록 나 의 — 기 도 가 이 나 라

23 E/G# A D G E 7 A B m7

살 릴 수 있 다 면 — 나 는 결 코 이 기 도 를 쉬 는 죄 를 범 치 — 않 으 리 우 리 — 기 도 로 이 나 라

27 E/G# A D B m7 E 7 A

회 복 할 수 — 있 다 네 피 로 명 든 낙 타 무 를 간 절 한 눈 물 — 의 기 — 도 —

6/5-11

1주 가정예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요한복음 15:8



이 달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37P



말씀읽기 - 요한복음 15:8

- 0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생각하기

- Q1.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Q2.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보고 함께 다짐해봅시다.



말씀듣기

본문 말씀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주령주령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씨와,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지가 나무로 하여금 영양분을 받듯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을 통해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죽듯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비록 연약한 가지이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의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	--	--	--	--	--	--	--	--	--	--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6/12-18
2주 가정예배

삼위 하나님의 축복

고린도후서 13:13



이 달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37P



말씀읽기 - 고린도후서 13:13

-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생각하기

- Q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와 사랑과 교제(관계)를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Q2.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본문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축복기도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돈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며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삼위이신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6/19-25

3주 가정예배

우리의 소원(통일)

로마서 9:1-5



이 달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37P



말씀읽기 - 로마서 9:1-5

- 0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 02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 0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 0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0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생각하기

Q1. 나는 평소 북한에 대해 어떤 관심이나 생각을 갖고 있나요?

Q2. 복음 통일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이방 나라에 (가정)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의 동족인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자 아픔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이자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탄식 안에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같은 민족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 받아야 한다며,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울의 탄식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민족이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와 한 민족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바울의 탄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북한을 향한 안타까움과 복음통일을 위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기도를 갖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제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의 그 날까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루며, 한반도 전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5

6

3

6/26-7/2

4주 가정예배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6:1-3



이 달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37P



말씀읽기 - 호세아 6:1-3

0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0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0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생각하기

Q1. 죄를 저질러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 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Q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이웃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말씀듣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타락해 가는 나라를 보면서 호세아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줄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를 비주시며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

5

6

4

메모 MEMO



발행통권 | 32호
발 행 일 | 2022년 4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정천우
편 집 인 | 양동욱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